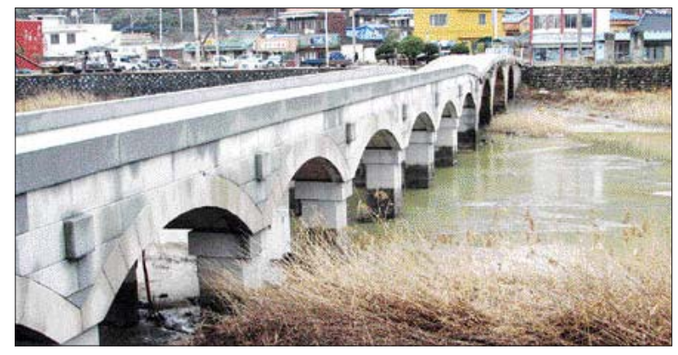
염상구 되어 철교위 담력대결 해볼까

■ 소설 '태백산맥' 무대 벌교 문학기행

소설을 읽으면 내가 소설 속 배경에 마치 서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곤 한다. 주인공과 빙의가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자주 가고 들어본 지명과 한번쯤 걸어봄직한 곳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과 함께 말하고 함께 느끼며 함께 싸우는 동안 나는 어느새 작가와 한 몸이 된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은 보성군 벌교읍 일대를 주무대로 펼쳐지는 장편대하소설이다. 이 소설은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년 벌교 포구를 배경으로 시작해 6·25전쟁이 끝나고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가던 1953년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태백산맥은 작가 조정래가 지난 1983년 연재를 시작해 1989년 10권을 완간한 이후 550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벌교에 가면 소설 속에 등장한 배경이 신축되거나 고스란히 남아있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도는 3월, 태백산맥의 주인공 염상진이 되어 그곳을 걸어보자.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배경지인 순천시 벌교읍 회정리 일대에는 소설속에 출현했던 건물이나 집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주인공 염상구가 주먹패의 왕초와 담력 대결을 벌였던 철다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소설 속 배경보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뻗어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현부자네 집은 소설 태백산맥의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곳으로 조직의 밀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새끼무당 소화의 집을 찾아가면서 현부자와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펼쳐지게 된다.(위) 아래는 보물 제304호로 지정되어 있는 홍교.

◇**굴곡진 역사의 현장 '벌교'**=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배경무대인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는 책 속에 출현했던 건물이나 집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지난 2008년 11월 21일 개관한 태백산맥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4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층 규모의 연면적 1천400여㎡에 달하는 이 문학관에는 조정래가 소설을 구상하고 쓰고 탄압받고 출간되기까지 6년간의 집필과정, 취재노트, 육필원고, 언론 보도 내용, 조정래씨가 사용하던 물품 등 700여점이 전시돼 있다. 문학관은 현부자네 집과 소화의 집 근처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소설 속 배경 지식을 획득한 후 주무대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태백산맥 문학관 작가 물품 전시

문학관을 나서면 현부자네 집이 바로 보인다. 소설 태백산맥의 첫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집으로 조직의 밀명을 받은 정하섭이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새끼무당 소화의 집을 찾아가면서 현부자와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펼쳐지게 된다. 관리가 잘 돼 있어 "이리 오너라"라고 부르면 당장에라도 누군가 뛰쳐나올 것 같다. 바로 밑에는 소화의 집이 있다. '조그만 하고 예쁜 기와집. 방 셋에 부엌 하나인 집의 구조… 부엌과 붙은 방은 안방이었고, 그 옆방은 신을 모시는 신당이었다. 부엌에서 꺾여 붙인 것은 헛간방이었다' 소설 태백산맥(1권 17쪽)에 나오는 무당 소화네 집의 모습처럼 아담하게 생겼다.

◇**소화다리·홍교… 이곳에선 내가 주인공**=소화네 집을 뒤로하고 터벅터벅 30여분 걸어가면 소설 속 또 다른 주인공 김범우의 집이 나온다. 소설에서는 품격 있고 양심을 갖춘 대지주 김사용의 집으로 그려지고 있다. '과분한 땅이라고? 이 사람아, 요 정도가 내가 지닌 땅 중에서 젤로 나쁜 것이네. 눈 붉은 우리 선대의 유산이 어련허겄는가. 맘 쓰지 말고 밭 일구도록 허게. 허허허허…(태백산맥 1권 141쪽)'

특히 안채 오른쪽 앞 부분 귀퉁이에 있는 돼지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무리 대주주라 하더라도 음식 찌꺼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고 돼지를 길렀음을 알 수 있다.

김범우 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현존하는 아치형 석교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워 보물 제304호로 지정되어 있는 홍교가 보인다. 벌교 포구를 가로지르는 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량으로 세 칸의 무지개형 돌다리이다. 원래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뗏목다리가 있었는데 서기 1728(영조4년)에 선암사의 초안선사가 보시로 홍교를 건립했다.

건물·집 분단 상흔 고스란히

강가를 따라 내려가면 부용교(소화다리)가 있다. 피비린내 나는 이념갈등, 주민들의 고통이 깊이 새겨진 다리다. 이 다리는 여순사건의 회오리로부터 시작해서 6·25의 대 격랑이 요동치면서 남긴 우리 민족의 비극과 상처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양쪽에서 밀고 밀릴 때마다 이 다리 위에서 총살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소설에서 '소화다리 아래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허니 널렸는디, 아이고메 인자 징혀서 더 못 보겄구만이라…. 사람쥑이는거 날이 날마동 보자니께 환장 허겄구만요.(태백산맥 1권 66쪽)'라는 표현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근에는 아직도 운행 중인 철다리가 있다. 1930년 경전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놓인 이 철다리는 소설의 배경이었던 시절은 물론 1970년대 후반 국도2호선 도로가 선형을 바꾸기 이전까지만 해도 홍교, 부용교와 함께 벌교포구의 양안을 연결하는 세 개의 교량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주인공 염상구가 주먹패의 왕초와 담력 대결을 벌였던 철다리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소설 속 배경보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뻗어 있다. 길게 뻗은 기찻길은 나도 한 번 그 위를 걷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박하사탕'의 설경구처럼 말이다.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벌교 꼬막**=벌교는 보성군과 화순군을 포함한 내륙과 직결되는 포구였다. 게다가 고흥반도와 순천, 보성을 잇는 삼거리 역할을 담당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모든 교통의 요지가 그러하듯 벌교에도 주먹패가 많았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벌교 가서 돈 자랑, 주먹 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 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 멋 자랑 하지 말라'는 말과 나란히 사용되고 있다.

벌교 꼬막 쫄깃하고 얼큰한 유혹

또 벌교는 태백산맥 문학기행은 물론 벌교옹기, 천연염색, 차, 용문석 등 전통문화 체험과 채동선 생가, 낙안민속마을, 나철선생 유적지, 부용산공원 등을 연계 관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벌교 꼬막은 오염 없는 여자만의 차진 개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꼬막은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맛이 들기 시작해서 봄철 알을 품기 전까지가 가장 맛이 좋다. 삶은 꼬막과 꼬막전, 꼬막꼬치를 먹고 꼬막회무침에 밥을 슥슥 비벼 먹는 정식은 대개 1만2천원 안팎이다. /글·사진=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